



2020년 09월 가정통신문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어르신 면회, 외출이 자제되어 보호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로인해.

외부프로그램도 당분간 중단하기로 하였고
어르신들 앓는 탁상위에도 투명칸막이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매일 차별화가 있는 내부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과 더 가까이에서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진은 밴드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부터 보다 쾌적한 환경과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아울러 9월 1일부터 점심식사를 센터에서 직접 조리하여 어르신들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성으로 영양과 위생을 선택하였고,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서 외부음식에 대한 경각심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반복적인 행동이 익숙함이 되어 조금은 느슨해지기도 하지만
코로나 익숙함은 센터 환경으로 어르신을 모시는데 긴장하게 하는 장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자주 자주 행복한 날들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